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어떻게 참구할 것인가

원숭이와 난다존자

초기 경전인 담마빠다(법구경)나 수타니파타(경집)의 일화들을 보면 원숭이와 관련된 수많은 일화들이 나온다. 서유기에 보면 원숭이에 불과한 손오공은 마침내 공(空)을 깨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 결국 투전승불이라는 부처님이 되어 지금도 참회하는 이들의 절을 받는다.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원숭이들을 크게 존중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인도의 고대 서사시 라마야나에 나오는 힌두교의 신인 하누만도 원숭이고, 중국에서는 원숭이는 신의 사자(使者)라고 해서 존중받는 존재이다.

또한 노보노 원숭이나 침팬지 등은 유전자 계통이 인간과 겨우 1.3% 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 돌은 먼 옛날로 돌아가면 한 조상에서 떨어져 나왔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담마빠다에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인 대중스님네들의 소란을 피해 어느



일본 닛코 도쇼공의 국보 삼후상

구나가 다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난다존자를 데리고 천상으로 올라가 아름다운 천녀들을 보여주니 순다리의 아름다운 원숭이의 외모에 불과함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난다존자는 열심히 수행하여 아라한과를 얻은 후 모든 음욕을 벗어나 범행을 성취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야생 일본원숭이들이 산다. 일본원숭이는 보통은 열대지방에서 살아가는 원숭이들 중에 가장 북방한계선에 사는 원숭이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닛코에 있는 도쿠가와이에야스의 사당인 도쇼공에 가면,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마구간 건물에 투각부조로 붙어있는 8가지의 원숭이 상들이 있다.

그 중에 한 투각 부조판에는 손으로 눈을 감싸고, 입을 막고, 귀를 덮은 세 마리의 원숭이 조각이 있다. 일본인들의 처세술을 상징하기도 하는 이 원숭이 조각에서 절문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리라 본다.

그런데 며칠 전 속가 모친이 신도로 등록해 다니는 인천 용화선원에 갔다가 철능 이기우 선생이 서각한 범보전 현판이 걸린 계단으로 이르는 입구에 세 개의 원숭이 조각이 있는 것을 보았다.

용화사에 범보선원을 개설하셨던 전강 영신 큰스님이 아니면 그 전법제자 이신 송담 정은 큰스님께서 만들도록 지시하셨을 것인 분명한 세 개의 원숭이상은 수행자들이 어떻게 참선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1975년 1월13일 점심공양을 마친 전강 큰스님은 사자에게 "나, 오늘 가야겠다"며 임적을 미리 알리시고, 스님은 제자들에게 "내 몸에서 사리를 수습하지 말고 서해에 갔다 버리라"는 유훈을 남기시고 가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경전에 원숭이 일화 자주 등장 난다 존자에게 깨달음 주기도

숲속으로 홀로 들어가서 지내실 적에 한 원숭이가 과일을 따다 바치자 부처님께서 말없이 받아 드시자 기뻐서 좋아하면서 펄펄 나무 주위를 뛰어다니다가 떨어져 죽은 이야기도 나온다.

중국 송산 소림사의 무술 중에 가장 고강한 무술에 속하는 무술이 바로 원숭이의 동작을 본 딴 후권인데 기록에 의하면 반선도약(盤旋跳躍)하며 얼마나 날랜지 눈으로 따라보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이복동생으로 최초의 비구니였던 마하파자파티의 아들이다. 부처님이 출가하신 후 카필라국의 태자로서 왕위에 오를 날을 기다리며, 나라 제일의 미녀인 순다리와 혼약이 되어 결혼식을 하기 전날, 부처님께서 일부터 왕궁을 방문하여 발우를 들게 하여 승원으로 데리고 와서 출가시킨 스님이다.

난다존자가 부처님을 따라 가는 것을 안 순다리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라고 한 그 모습을 잊지 못하는 난다 존자를 위해 부처님은 먼저 보기 흉한 숲속의 암굴승가를 보여주고, 순다리와 원숭이 중 누가 더 이쁘고 아름다운지 묻는다.

물론 순다리가 훨씬 더 예쁜 것은 누

현대무용으로 탄생한 붓다의 일생

파사무용단 '붓다 일곱걸음의 꽃'

"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성장하였으며 인간으로서 붓다를 이루었다"

붓다의 일생이 현대무용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불교 문화의 종합예술'을 표방하는 파사무용단(예술감독 황미숙)의 '붓다 일곱걸음의 꽃'이 11월 9일~11일 국립중앙박물관 '용'에서 공연된다.

파사무용단은 "세계의 눈이 동양의 문화 정서 그리고 종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양의 불교가 신앙이라면 서양의 불교는 철학이며 사상이다. 그럼 왜 서양인들이 불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대해 생각해볼게 된다. 부처님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붓다로 불리게 되었고 공포에도 고통에도 산란을 일으키지 않는 부동의 깨달음으로 해탈에 이르고 열반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부처님의 삶을 이미지화해 무대에 올리고자 한다. 이번 작품은 불교문화의 종합예술을 현재의 시각으로 다시금 되짚어보고자 하는 의미로 기획됐다"며 의도를 전했다.

파사무용단은 출가해 고행의 긴 시간을 거쳐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길을 여섯 씬에 담아낸다. 탄생, 출가, 고행, 마라의 유혹, 열반 등 특징적 소재를 여섯 장면에서 펼친다.

황미숙 예술감독은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지만 이번 작품을 위해 많은 공부를 했다. 동국대 박사 과정 중에 있는 법한 스님에게 질문을 드리며 3-4개월 동안 공부했다. 그리고 이를 한 장면 한 장면의 이미지로 구축했다. 또한 100일 동안 108배

를 하며 부처님의 고행을 아주 조금이라도 느껴보고자 했다. 나로서도 불교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한다.

공연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붓다를 이루었다'를 표현하는 씬1으로 문을 연다. 씬2는 부처님 탄생 당시를 표현한 '일곱걸음(周行七步)'을 보여주며 씬3은 성곽을 넘어 출가에 이르는 '싯다르타'의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이 장면은 줄을



파사무용단의 '붓다 일곱걸음의 꽃'이 11월 9일~11일 국립중앙박물관 '용'에서 공연된다.

반야심경 서양악기와 만나

새로운 배경 음악 탄생

종합예술로 무대 연출

11월 9일~1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용'서 공연

무여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 부처님의 고행을 상징한다. 결국 옷을 벗어버림으로서 출가에 이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번뇌와 망상을 짚어낸 인간의 모습과 구도의 길로 들어서는 수행자의 모습을 절묘하고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씬4 '그리고 해탈'은 깨달음에 이르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생의 모습에 대한 의문과 고행에 대한 질문을 짚어지고 고행에 든 부처님은 마라의 유혹 등을 이겨내고 깨달음에 이른다. 씬5 '열 개의 이름 심대제자'는 부처님 제자에 대한 각별함을, 씬6 '궁극의 열반 Nirvana'은 전법을 마친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번 공연은 시작 전 관객들이 로비에서

발원문을 쓰고 동국대 정각원 신도 30여명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와 발원문을 걸고 탑돌이를 한다. 이는 모든 관객이 함께 동참해 무대를 만들고 이미지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황 감독은 "부처님께서 중생구제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셨다. 공연의 시작을 이렇게 여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함께 발원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준다는 의미에서 나눔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각원 신도들이 참여해 탑돌이를 하고 마지막 장면인 열반에서도 함께 가부좌를 틀고 앉는 등 대중과 함께하는 공연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등의 불경을 주제로 한 배경 음악도 인상적이다. 이들은 서양의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타악기 등과 만나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무대를 만들어낸다. 특히 반야심경은 총반무심사 동자승들의 독경을 따와서 신선함

을 더했다. 여기에 여백의미를 강조한 무대 세트 역시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것이다.

파사무용단은 "이번 공연을 마친 후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다시 한번 관객들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사무용단은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품화한 <목련(目蓮), 아홉 번째 계단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내면을 보듬기 위해 시도되었던 청소년 프로젝트 <칼레아데스의 선택>, <서랍 속의 시간> △가족화 된 성장 발전의 이면에 자리한 상대적 그늘인 환경과 폐해, 파괴되는 자연의 심각성을 무대에 올린 <승어의 하늘> <색다른 공기> 등 매 번 사회적 이슈와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02)589-100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부처님 가르침 지혜의 빛으로 '승화'

조계종 특별기획전 개막...공아트스페이스서 13일까지



자승 스님 등 참가 내빈들이 전시실을 둘러보며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은 조계종이 기념 특별기획전 '지혜의 빛 色으로 전하고, 법으로 그리다' 전을 개최했다. 10월 31일 관훈동 공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올해로 42주년을 맞은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당선 작가들의 작품을 특별전시해 불교미술 작가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02)735-9938

전통 종이꽃의 美 알린다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원전

불교지화장엄전승회에서는 11월 6~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깨달음의 꽃, 전통지화전'을 개최한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전통 불교지화 제작 방식의 재현'을 주제로 했다.

불교지화장엄전승회는 "옛 방식으로 제작한 한지에 천연 염료로 염색해 전통 방식을 고수했다. 이를 통해 불교지화의 전통적 제작 방식을 복원하려 했으며, 우리 고유의 불교지화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했다"며 전시 취지를 전했다.

전시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로는 2012년 연등회와 삼하사·진관사 수록재에서 실제로 불단을 장엄한 불교 지화를 전시한다. 이를 통해 불교의



식과 그에 사용되었던 지화들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번째 파트로는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원들이 각자 제작한 지화 작품들을 전시한다. 전통적 재료를 사용 현대적으로 제작한 작품들에서는 불교지화 전통의 현대적 변화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지화 작가인 김태연 대구대 교수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정혜숙 기자

반야동자 (12절)
3,000부 이상 @ 800 원

- 200부 이상 @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보리심 (한지)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행복한하루 (탁상)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선 (수첩)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 : 18장

연꽃향기 (미니)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 600
- 규격 : 8.9cm × 9.5cm
- 매수 : 16장

since 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등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 서적, 사경지, 연등, 염주, 향, 양초, 다포, 4.8용품, 백중용품]